

동북아시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에 관하여

강원도의회의장 김 시 성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또한 여러 의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는 주로 미국과 구주지역을 주 대상으로 해 왔고, 아시아 지역도 한정된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와의 문화교류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문화교류는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국가 혹은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적 가치의 고유성과정체성을 정립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문화적 연대성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바야흐로 동북아시아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문화와 관광 협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화 추세와 병행하여 유럽의 EU, 미주의 NAFTA 등 권역별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긴장, 저밀도의 영역에 속하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의 동북아의 협력 강화는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커다란 기여와 전기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는 각자 유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 왔으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진일보(進一步)하여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새로운 동아시아적 가치를 창출해야합니다. 동서 문명이 실크로드로 이어지면서 농경



문화와 유목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명이 창조 되었듯이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면, 자국의 문화예술을 한 층 더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동북아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근접성에 의해 인적 교류가 크고, 또한 상호협력에 의해 발전, 성숙해 갈 수 있는 이웃들이라고 봅니다. 동북아시아 문화교류는 각기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한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문화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근대 이후 수백 년 간 지속되어온 서구중심 가치체계가 아시아와 세계가 공동의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우선 아시아 문화관광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동북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관광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넓히고, 이와 더불어 서울 등 수도권에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쉽고 편하게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K Travel 버스를 운영하여 강원도의 대표 관광지인 강릉, 평창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해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크루즈 연계 관광, 세계 유일의 분단현실인 DMZ 등의 근현대 유산자원 관광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잠재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강원도는 지역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갖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거듭 날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광협력은 문화협력과 함께 했을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하나 된 열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이 스포츠 행사이기도 하지만, 문화행사이기도 하기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시아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과 이어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까지 3개국에서 개최되는 메가 이벤트

(Mega Event)가 동북아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 때마다 주변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독자적 경험이 담긴 문화행사와 이를 역외 관광 증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계획,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와 스포츠는 관광산업의 핵심 자원이며, 동시에 관광은 문화와 사람이 흐르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문화-스포츠-관광 분야에 있어서 모두 함께 동북아 권역 단위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 여행의 70%가 근거리 여행인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동북아시아권을 단일한 역내 관광권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역내 관광 활성화는 상호간 문화이해의 증대와 신뢰 증진이라는 선순환은 물론, 동북아 공동 관광브랜드 형성, 유럽의 u-rail pass와 같은 단일 티켓 개발 등 이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진흥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상대를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서로 가슴을 열고 소통할 때 공동발전과 번영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문화교류에서 실현되는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고긴장, 고밀도 영역에서의 크나큰 협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문화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면, 문화와 문명의 역사가 오랜 만큼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을지 모를 편견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창조해 낸 공존, 그 최선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동북아시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숙명입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국가 공동의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상을 위해 따뜻한 친구의 손길로 서로를 아껴 나갑니다.